

日本の 日記資料에 수록된 高麗王朝 關係 記事의 研究*

장 동 익**

目 次

1. 머리말
2. 資料의 現況
3. 高麗關係 記事의 內容
4. 주목되는 기사의 검토
5. 맺음말

1. 머리말

최근 고려시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기의 소략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자료집을 발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작업에 참여하여 宋·元代の 각종 자료에 수록된 고려왕조 관계 기사를 검토한 바 있다.¹⁾ 이들 연구에 이어서 일본 고대 및 중세 사회의 각종 자료에 수록된 고려 관계 기사를 정리하여 이 분야의 연구에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01년도 경북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 張東翼, 「元代の 資料에 수록된 高麗王朝 關係 記事의 研究」, 『한국중세사연구』3, 1996.

_____, 「宋代の 資料에 수록된 高麗王朝 關係 記事의 研究」, 『한국중세사연구』7, 1999.

고려와 일본의 정부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1세기 중반이래 양국 상인들의 빈번한 왕래에 수반하여 경상도 지역의 지방 관부와 일본의 외교 관문이었던 大宰府 사이에는 무역·漂流民 刷還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접촉이 있었다. 또 이와 관련하여 對馬島가 일본 정부의 承認을 받지 않고서 歲貢船을 고려왕조에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활발한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양국의 정치·외교적 형편으로 인해 양국 간에는 경제적·문화적·인적 교류도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 결과 각종 일본측의 자료에서는 고려 및 고려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정들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극히 단편적인 고려 관계 기사가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필자가 최근 수년간에 걸쳐 현존하는 일본의 각종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高麗王朝 關係 記事를 정리해 본 결과 대략 450여건의 자료가 찾아지고 있다. 이들을 자료의 유형에 따라 헤아려보면 23종류의 日記類에 245건, 26종류의 編纂記錄類에 162건, 古文書資料 31건, 序跋·題記類 14건 등이다. 이들 자료는 내용적으로 여러 부문에 걸쳐 다양하지만, 고려왕조측의 외교 수립을 위한 사신 및 國書의 파견, 양국인의 왕래, 漂流民의 송환, 한반도 문물의 일본 전래 등에 관한 자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자료 중 日記類는 내용 자체가 극히 간단하여 이를 통해 고려와 일본의 외교 관계의 추이를 살펴볼 수는 없다. 단지 한국측의 연대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韓·日 兩國 사이에 이루어졌던 접촉의 사실 및 고려와 일본 양국 사이에 이루어졌던 인적 교류 및 문물 교류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2. 資料의 現況

한반도의 고려왕조가 유지되었던 시기에 해당하는 일본의 고·중세

시기에는 中國式 漢文의 구사 능력이 지배층들에게조차 익숙하지 않아 한국과는 달리 漢文으로 된 각종 자료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文人들의 文集도 많이 남아 있지 않은 형편이지만, 왕실의 측근에서 활약했던 지배층들에 의해 쓰여진 극히 간단한 형식의 日記類는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이들 日記類는 宮廷·官署의 일기인 殿上日記·內記日記·外記日記 등과 같은 公的인 日記[公日記]와 일본국왕 이하 귀족들의 個人記錄인 사적인 일기[私日記]로 분류할 수 있다.²⁾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인 헤이안(平安) 말기에는 전자가 점차 없어져 갔는 데 비해, 후자는 헤이안 시대부터 이의 전성시대라 할 만큼 많이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고려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武家政權의 성립으로 公家の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 외 寺院과 神社를 중심으로 한 寺社日記類가 더러 남아 있으나, 이 역시 寺社의 沿革·實態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국가 및 대외관계의 사실은 그리 반영되어 있지 않다.³⁾

이들 각종 일기 중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인 13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私的인 日記에는 한국 측의 연대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韓·日 두 나라 사이의 접촉 및 표류민의 송환에 대한 사실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들 일기의 내용 자체가 극히 간단한 뿐만 아니라 고려 관계 기사는 더욱 피상적인 언급으로 되어 있어 이들을 통해 고려와 일본의 외교 관계의 추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고려후기에 해당하는 13세기 이후에 쓰여진 일기에서는 倭寇

-
- 2) 일기의 내용에 있어서 사적인 일기[私日記]가 朝廷의 행사 및 儀式的 순서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려고 한 점을 보아 이것 자체가 公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공적인 일기와 사적인 일기의 차이는 작성된 장소 곧 관청, 기록자의 집(家)일뿐이므로, 이를 官日記, 家日記로 분류하기도 한다.
 - 3) 고려왕조가 존속했던 시기의 일본 고·중세 시기에 쓰여진 私日記는 대략 55종류, 社寺日記類는 9종류가 현존하고 있다(村上直等編, 『日本史資料總覽』, 東京書籍, 1986; 小西四郎等編, 『日本史總覽』, 新人物往來社, 1988).

들의 한반도 침입 및 이에 대응한 고려 측의 사신 파견, 元 나라의 일본 초유를 위한 사신 파견 및 여원연합군의 일본 정벌에 대한 기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에 관한 기사는 고려 측의 자료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상황만이 반영되어 있을 뿐인 데 비해, 각종 일기를 통해 일본에서의 형편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 당시의 역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일본의 고·중세 사회에서 만들어진 日記類에 나타난 고려 관계 기사를 자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公家日記類에 수록된 기사

(1) 藤原忠平, 『貞信公記抄』: 天慶 2년 2월 15일, 3년 6월 21일·23일·24일 등 4건.

(2) 平親信, 『親信卿記』: 天祿 3년 10월 7일·15일, 天延 2년 윤10월 30일 등 3건.

(3) 藤原行成, 『權記』: 長德 3년 10월 1일, 長保 4년 7월 16일, 寬弘 1년 3월 7일 등 3건.

(4) 藤原實資, 『小右記』: 永觀 2년 4월 3일·21일, 長德 2년 5월 19일 2件, 3년 6월 12일 2件·13일, 10월 1일 2건, 長保 4년 6월 27일, 寬仁 3년 4월 17일 2건·18일 2건·20일·21일 2건·24일 2건·25일 3건·26일·27일 2건, 5월 3일 2건·4일·24일 2건, 6월 21일·29일 3건, 8월 3일·21일, 9월 19일, 22일 2건·23일 2건·24일, 12월 30일 2건, 長元 4년 2월 19일 3건·24일 2건·26일 등 50건.

(5) 源經賴, 『左經記』: 寬仁 2년 4월 21일, 9월 22일, 4년 4월 11일, 8월 25일 등 4건.

(6) 源俊房, 『水左記』: 承曆 4년 2월 16일, 4월 19일, 8월 7일, 윤8월 2일·5일·8일·11일·13일·14일·23일·24일, 9월 3일·4일·6일·12일·17일·18일·24일, 10월 10일·11일, 11월 2일·3일 등 22건.

(7) 源經信, 『帥記』: 承曆 4년 윤8월 5일, 14일, 22일, 25일, 9월 2일, 3일, 4일, 永保 1년 5월 2일 등 8건.

(8) 藤源宗忠, 『中右記』: 寬治 6년 6월 27일, 承德 1년 9월 20일, 天仁 1년 2월 9일 등 3건.

(9) 藤原忠親, 『山槐記』: 永曆 1년 12월 17일 1건.

(10) 藤原經房, 『吉記』: 治承 5년 3월 6일 1건.

(11) 九條兼實, 『玉葉』: 文治 2년 2월 24일 1건.

(12) 藤原經光, 『民經記』: 嘉祿 2년 12월 27일, 3년 5월 1일·15일, 7월 18일·21일 등 5건.

(13) 藤原定家, 『明月記』: 嘉祿 2년 10월 16일·17일, 12월 7일, 3년(安貞 1) 2월 18일, 4월 13일, 8월 12일 등 6건.

(14) 平經高, 『平戶記』: 延應 2년 4월 12일·13일·14일·17일 등 4건.

(15) 近衛基平, 『深心院關白記』: 文永 5년 윤1월 10일, 2월 4일·5일·6일·7일·8일·9일·10일·12일·13일·14일·17일 2건·19일·24일·25일, 3월 27일 등 17건.

(16) 藤原經長, 『吉續記』: 文永 5년 6월 22일, 9월 2일·3일·4일·5일·6일·7일·21일·22일·23일, 10월 2일·23일·24일·25일, 11월 22일, 12월 11일·16일, 正安 3년 12월 10일·11일 등 19건.

(17) 廣橋兼仲, 『勘仲記』: 文永 11년 10월 18일·22일·29일, 11월 6일, 建治 1년 10월 21일, 弘安 2년 7월 25일·29일, 4년 5월 8일, 6월 1일·3일·4일·14일·24일, 윤7월 1일·7일·14일·17일·21일, 弘安 4월 4일·5일 등 20건.

(18) 小槻顯衡, 『弘安四年日記抄』: 弘安 4년 5월 5일, 6월 2일·4일·5일·9일·15일·16일·18일·21일·24일·27일·29일, 7월 1일·2일·6일·12일·21일·25일·26일·27일·29일·30일, 윤7월 2일·9일·10일·11일·12일·17일·21일, 8월 10일·11일 등 31건.

(19) 中原師守, 『師守記』: 貞治 6년 4월 6일·17일·18일·23일·24

일 · 25일 · 26일, 5월 5일 · 8일 · 9일 · 10일 · 15일 · 16일 · 18일 · 19일 · 20일 · 21일 · 23일 · 27일 · 28일, 6월 2일 · 4일 · 7일 · 13일 · 26일 등 25건.

(20) 三條公忠, 『後愚昧記』: 貞治 6년 3월 24일, 5월 9일 · 12일 · 23일, 6월 26일, 應安 1년 5월 21일 등 6건.

(21) 近衛道嗣, 『愚管記』: 貞治 6년 3월 20일, 4월 28일, 5월 23일, 應安 1년 5월 16일 · 25일, 윤6월 2일, 永和 2년 5월 3일 등 7건.

2) 寺社日記類에 수록된 기사

(1) 成尋, 『參天台五臺山記』: 延久 4년 3월 20일, 4월 23일, 宋 熙寧 5년 10월 14일, 6년 2월 24일 등 4건.

(2) 戒覺, 『渡宋記』: 永保 2년 9월 16일 1건.

3. 高麗關係 記事의 內容

이상과 같은 일본의 고 · 중세에 만들어진 23종류의 일기에 나타난 고려 관계 기사 245건의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39년(태조 22, 天慶 2)

· 2월 15일 攝政 藤原忠平이 고려의 國書[牒狀]를 左少辨藏人 大江朝綱에게 보냄/『貞信公記抄』, 天慶 2년 2월 15일.

· 3월 11일 大宰府가 고려의 廣評省에 보내는 答書[返牒]와 함께 사신단을 돌려보냄/『帥記』, 承曆 4년 윤8월 5일, 25일.

940년(태조 23, 天慶 3)

· 6월 21일 이래 일본 조정에서 고려의 국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논함/『貞信公記抄』, 天慶 3년 6월, 21일, 23일, 24일 ; 『帥記』, 承曆 4년 윤 8월 5일, 25일.

954년(광종 5, 天曆 8)

· 1월 25일 新羅(高麗)가 일본을 공격하려한다는 風聞이 있어 藤原朝忠을 大宰大貳로 임명함/『吉記』, 治承 5년 3월 6일.

972년(광종 23, 天祿 3)

· 9월 23일 大宰府가 고려의 南京府使 咸吉兢이 국서를 가지고 대마도에 도착한 것을 일본 조정에 보고하고, 이것이 다음달 7일 일본 조정에 전해짐/『親信卿記』, 天祿 3년 10월 7일.

· 10월 15일 大宰府가 고려의 金海府使 李純達이 국서를 가지고 대마도에 도착한 것을 일본 조정에 보고함/『親信卿記』, 天祿 3년 10월 15일.

974년(광종 25, 天延 2)

· 윤10월 30일 일본 조정의 高麗國交易使(高麗貨物使)가 대마도에 파견되어 고려의 産物을 구입해 감/『親信卿記』, 天延 2년 윤10월 30일.

984년(성종 3, 永觀 2)

· 4월 3일 高麗船이 筑前國 早良郡에 도착함/『小右記』目錄, 永觀 2년 4월 3일, 21일.

996년(성종 15, 長德 2)

· 5월 19일 일본 조정이 石見國에 도착한 高麗國人에게 식량을 주어 귀국시키도록 결정함/『小右記』, 長德 2년 5월 19일.

997년(성종 16, 長德 3)

· 6월 12일, 13일 일본의 公卿들이 고려의 침장에 일본을 모욕하는 문구가 있다고 하면서 국서에 대해 答書を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要害地를 경계하게 함/『小右記』, 長德 3년 6월 12일, 13일 ; 『水左記』, 承曆 4년 9월 4일 ; 『帥記』, 承曆 4년 9월 2일, 3일 ; 『師守記』, 貞治 6년 5월 9일.

· 10월 1일 奄美島人に 의한 일본 지역 침입을 高麗人의 침입으로 오인함/『權記』, 長德 3년 10월 1일 ; 『小右記』, 長德 3년 10월 1일.

1002년(목종 5, 長保 4)

· 6월 27일 일본 조정이 苛政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와 살기를 요청한 고려인에 대해 의논함/『小右記』目錄, 長保 4년 6월 27일.

· 7월 16일 大宰府에 도착한 고려 漂流人 4인 및 移住를 희망한 고려인[參來高麗人] 20인에 대해 일본 국왕이 2通的 문서[宣旨]를 내림/『權記』, 長保 4년 7월 16일.

1004년(목종 7, 長保 6)

· 3월 7일 일본 조정이 因幡國에 도착한 于陵鳴人 折兢悅 등 11인에 대해 의논함/『權記』, 寬弘 1년 3월 7일.

1019년(현종 10, 寬仁 3)

· 3월 28일이래 여진족인 刀伊가 對馬島·壹岐島·筑前國 怡土郡 등의 지역을 공격했는데, 이들의 침입에 관련되었던 고려 관계 기사도 수록되어 있음/『小右記』, 寬仁 3년 4월 17일, 18일, 20일, 21일, 24일, 25일, 26일, 27일, 5월 1일, 3일, 4일, 24일, 6월 29일, 8월 3일 등.

· 5월 29일 고려의 康州人 未斤達이 筑前國 志摩郡에 표착하여 온 것을 구금하고 신문함/『小右記』, 寬仁 3년 6월 21일.

· 9월 19일이래 일본 조정이 고려가 鄭子良을 파견하여 여진족에 의해 피로된 일본인을 송환시키는 동시에 침장을 보낸 것을 의논함/『小右記』, 寬仁 3년 9월 19일, 22일, 23일 ; 『左經記』, 寬仁 3년 9월 22일.

· 12월 30일 大宰府가 일본 조정에 고려의 使臣에 관한 일기를 바쳤는데, 高麗人 30인이 승선한 선박 2척이 대마도에서 출발하여 筑前國에 표착하였다고 함/『小右記』, 寬仁 3년 12월 30일.

1020년(현종 11, 寬仁 4)

· 2월이래 고려의 사신인 鄭子良이 여진족에 의해 피로된 일본인을 쇄환시키기 위해 일본에 도착한 이후 이의 대접과 答書 작성에 대한 의논이 이루어짐/『左經記』, 寬仁 4월 11일, 8월 25일.

1031년(현종 22, 長元 4)

· 2월 19일이래 1년 전 일본에 표류해온 耽羅人 8인을 귀환시킴/『小右

記』, 長元 4년 2월 19일, 24일, 26일.

1051년(문종 5, 永承 6)

· 7월 10일 일본 조정이 고려 金州가 商船을 통해 牒狀을 보낸 것을 의논함/『水左記』, 承曆 4년 9월 4일 ; 『帥記』, 承曆 4년 윤8월 25일, 9월 2일.

1072년(문종 26, 延久 4)

· 3월 20일 求法僧 成尋 일행의 선박이 耽羅島 부근을 통과함/『參天台五臺山記』1.

· 4월 23일 송에 들어간 求法僧 成尋이 杭州 부근의 바다에서 高麗商人[高麗船人]을 만남/『參天台五臺山記』1.

1080년(문종 34, 承曆 4)

· 2월 16일 大幸帥 藤原資仲이 올린 高麗國皇帝의 牒이 일본조정에 보고될 것이 논의됨/『水左記』自筆本, 承曆 4년 2월 16일.

· 4월 19일 일본 조정에서 예빈성의 첩에 대한 의논이 이루어져 醫師를 파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水左記』自筆本, 承曆 4년 4월 19일.

· 8월 7일 藏人辨^{右少辨} 藤原伊家が 예빈성의 첩장을 의논하도록 명한 宣旨를 大納言 源俊房에게 전함/『水左記』, 承曆 4년 8월 7일.

· 윤8월 2일 大納言 源俊房이 조정에서 고려가 의사를 요청한 것을 언급함/『水左記』, 承曆 4년 윤8월 2일.

· 윤8월 5일 일본 조정에서 고려의 첩장에 대해 의논하고 醫師를 파견할 것인가, 파견한다면 누구로 할 것인가, 答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함/『水左記』, 承曆 4년 윤8월 5일, ; 『帥記』, 承曆 4년 윤8월 5일.

· 윤8월 8일 大納言 源俊房이 고려가 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한 公卿들의 評議의 결과를 藏人辨 藤原伊家에게 전함/『水左記』, 承曆 4년 윤8월 8일.

· 윤8월 11일 藤原伊家が 源俊房에게 의사의 所在에 대한 情報의 의문점을 王則貞을 통해 조사할 것을 요청함/『水左記』, 承曆 4년 윤8월 11일.

· 윤8월 13일 藤原伊家が 源俊房에게 王則貞을 尋問했던 기록을 전함/『水左記』, 承曆 4년 윤8월 13일.

· 윤8월 14일 일본 조정에서 송 황제가 보낸 禮物에 대한 대처 및 고려의 의사 요청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後者의 경우 丹波雅忠과 의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제시됨/『水左記』, 承曆 4년 윤8월 14일 ; 『帥記』, 承曆 4년 윤8월 14일.

· 윤8월 22일 關白 藤原師實이 사람을 보내어 丹波雅忠에게 자문을 구하니, 雅忠이 의사를 파견한다면 惟宗俊通이 적합할 것이라고 회답함/『水左記』, 承曆 4년 윤8월 23일 ; 『帥記』, 承曆 4년 윤8월 22일.

· 윤8월 24일 藤原師實이 의사를 파견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답장을 大江匡房으로 하여금 기초하게 함/『水左記』, 承曆 4년 윤8월 24일 ; 『帥記』, 承曆 4년 윤8월 25일.

· 9월 2일 藤原師實이 源經信을 불러 大江匡房이 지은 答書を 보여줌/『帥記』, 承曆 4년 9월 2일.

· 9월 3일 藤原師實이 源經信·大江匡房을 불러 答書を 검토함/『水左記』, 承曆 4년 9월 3일 ; 『帥記』, 承曆 4년 9월 3일.

· 9월 4일 公卿들이 藤原師實의 집에 모여 답서에 대해 논의함/『水左記』, 承曆 4년 9월 4일 ; 『帥記』, 承曆 4년 9월 4일.

· 9월 6일 大江匡房이 源俊房에게 고려 칩장의 前例와 다른 점을 전함/『水左記』, 承曆 4년 9월 6일.

· 9월 12일 大江匡房이 源俊房에게 답서의 초안을 보고하고, 源俊房의 지시에 따라 내용 중의 殊俗을 蕃王으로 고침/『水左記』, 承曆 4년 9월 12일.

· 9월 17일 藤原師實이 公卿들을 招請하여 답서를 보여줌/『水左記』, 承曆 4년 9월 17일.

· 9월 18일 大江匡房이 源俊房에게 답서를 전하고, 源俊房이 이를 前筑後守 俊光으로 하여금 淸書케 함/『水左記』, 承曆 4년 9월 18일.

· 10월 2일 太政官의 명령서[官符]를 大宰府에 내려서 고려가 요청한 醫師를 파견하지 않는 것, 고려의 禮物를 돌려보내는 것, 大宰府의 答書[返牒]는 使者를 선발하여 보낼 것, 그리고 王則貞을 법에 회부하여 처벌

하는 것 등을 전함/『師守記』, 貞治 6년 5월 9일.

· 11월 3일 大江匡房이 源俊房과 의논하여 答書의 字句를 수정하고 關白 藤原師實에게 보고하여 最終本을 완성한 후 이것을 大宰府에 보냄/『水左記』, 承曆 4년 11월 3일.

1081년(문종 35, 永保 1)

· 5월 2일 일본 조정이 大宰府가 고려에 보낼 答書[返牒]에 대해 신청한 일을 의논함/『師記』, 永保 1년 5월 2일.

1082년(문종 36, 永保 2)

· 9월 14일 : 延曆寺의 승려 戒覺이 宋商 劉琨의 배를 타고 耽羅島 부근을 통과함/『渡宋記』.

1108년(예종 3, 嘉承 3)

· 2월 9일 일본 조정에서 唐人·高麗人이 일본에 到着하는 일에 대해 의논함/『中右記』, 天仁 1년 2월 9일.

1160년(의종 14, 永曆 1)

· 12월 17일 일본 조정이 고려가 對馬島의 상인을 구류한 것을 의논함/『山槐記』, 永曆 1년 12월 17일.

1185년(명종 15, 元曆 2)

· 3월 4일 對馬守 藤原親光이 平氏의 亂을 피해 가족 및 부하를 이끌고 고려에 망명함/『玉葉』, 文治 2년 2월 24일.

· 6월 14일 對馬守 藤原親光이 고려로부터 對馬島에 귀환함/『玉葉』, 文治 2년 2월 24일.

1206년(희종 2, 元久 3)

· 1월 14일 對馬島의 사신 明賴 등 40인이 金州 南浦에 도착하여 圓鮑 2000帖·黑鮑 2000果·鹿皮 30枚를 進奉함/『平戶記』, 延應 2년 4월 17일.

· 2월 고려의 金州防禦使가 일본의 對馬島에 牒狀을 보내 明賴 등이 바친 牒狀이 進奉의 예를 갖추지 못했음을 꾸짖고, 이를 돌려보냄/『平戶記』, 延應 2년 4월 17일.

1226년(고종 13, 嘉祿 2)

· 10월 16일 대마도와 고려가 싸웠다는 풍문이 있음/『明月記』, 嘉祿 2년 10월 16일.

· 10월 17일 松浦黨이 10여척의 兵船을 이끌고 고려의 別島를 공격하여 民家를 약탈하였다는 풍문이 있음/『明月記』, 嘉祿 2년 10월 17일.

· 12월 7일 藤原定家が 九條教實로부터 고려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풍문을 전해들음/『明月記』, 嘉祿 2년 12월 7일.

· 12월 27일 肥後·壹岐의 民들이 고려에 침입했다는 풍문이 있음/『民經記』, 嘉祿 2년 12월 27일.

1227년(고종 14, 嘉祿 3)

· 2월 18일 이래 일본 조정에서 고려의 침장에 대한 의논이 이루어짐/『明月記』, 嘉祿 3년 2월 18일, 4월 13일.

· 5월 1일 이 시기 이전에 고려의 전라주도 안찰사가 사신을 파견하여 大宰府 摠管에게 침장을 보내 倭寇의 침입에 대해 항의함. 이에 대응하여 大宰少貳 武藤資賴가 使臣團의 面前에서 惡徒 90인을 처형하고 가만히 答書를 보내는 동시에 침장의 正本을 關東에 보내고, 寫本을 關白 藤原^{九條}家實에게 보냄/『民經記』, 嘉祿 3년 5월 1일, 15일.

· 8월 12일 고려가 채차 침장을 보낸다는 巷說이 있음/『明月記』, 嘉祿 3년 8월 12일.

1240년(고종 27, 延應 2)

· 4월 3일 이 시기 이전에 고려의 牒狀이 일본에 도착하여 進奉船에 대해 무엇인가를 통보하였는데, 이 날 攝政 近衛兼經의 宿直處[直廬]에서 公卿들의 논의가 이루어짐/『平戶記』, 延應 2년 4월 12일.

· 4월 11일 이래 平經高가 近衛兼經에게 高麗牒狀에 대해 大宰府解· 尊問記 등을 참조하여 불분명한 것을 조사하라고 건의함/『平戶記』, 延應 2년 4월 12일, 13일, 14일.

· 4월 17일 大藏卿 菅原爲長이 1206년(희종 2, 泰和 6)의 高麗國牒狀을

찾아 平經高에게 전하자 平經高가 이를 日記에 베김/『平戶記』, 延應 2년 4월 17일.

1268년(원종 9, 至元 5, 文永 5)

· 윤1월 8일 少貳^{武藏}資能의 사신[飛脚]이 鎌倉에 도착하여 몽고·고려의 국서를 鎌倉幕府에 전달함/『師守記』, 貞治 6년 5월 9일.

· 윤1월 10일 左大臣 近衛基平이 異國[蒙古]이 일본을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들음/『深心院關白記』, 文永 5년 윤1월 10일.

· 2월 7일 鎌倉幕府의 使者 2인이 京都에 올라와 몽고에 관한 일을 일본 조정에 보고함/『深心院關白記』, 文永 5년 2월 5일, 7일 ; 『師守記』, 貞治 6년 5월 9일.

· 4월 26일 일본 조정이 몽고 사신단이 대마도에 도착한 것에 대해 의논함/『師守記』, 貞治 6년 5월 9일.

1271년(원종 12, 文永 8)

· 9월 2일 이래 鎌倉幕府의 使者가 京都에 올라와 고려의 첩장[三別抄의 牒狀]을 전달한 이후 일본 조정에서 이것에 대해 의논함/『吉續記』, 文永 8년 9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 10월 23일 이래 幕府의 使者가 京都에 도착하여 몽고의 국서를 전달하자 일본 조정이 答書를 마련하기로 결정함/『吉續記』, 文永 6년 10월 23일, 24일.

1274년(충렬왕 즉위년, 文永 11)

· 10월 13일 對馬島에서의 敗戰이 博多에 전해짐/『勘仲記』, 文永 11년 10월 23일.

1275년(충렬왕 1, 文永 12 : 建治 1)

· 10월 21일 일본 조정에서 원의 사신단이 가져온 첩장에 대해 의논함/『勘仲記』, 建治 1년 10월 21일 ; 『師守記』, 貞治 6년 5월 9일.

1281년(충렬왕 7, 弘安 4)

· 5월 22일 여원연합군이 對馬·壹岐島를 공격함/『弘安四年日記抄』,

弘安 4년 6월 2일.

· 6월 1일 여원연합군의 攻擊 소식이 京都에 전해짐/『勤仲記』, 弘安 4년 6월 1일 ; 『弘安四年日記抄』, 弘安 4년 6월 2일.

· 6월 14일 여원연합군의 전함 300여척이 長門國에 도착하여 공격한 것이 京都에 보고됨/『勤仲記』, 弘安 4년 6월 14일 ; 『弘安四年日記抄』, 弘安 4년 5월 15일.

· 6월 24일 江南軍의 일부가 대마도에 도착한 것이 京都에 보고됨/『勤仲記』, 弘安 4년 6월 24일.

· 윤7월 1일 여원연합군의 함대가 鷹島의 海上에서 大風雨에 의해 파손됨/『弘安四年日記抄』, 弘安 4년 윤7월 11일 ; 『勤仲記』, 弘安 4년 윤7월 14일.

1292년(충렬왕 18, 正應 5)

· 11월 12일 鎭西가 고려의 첩장이 도착한 것을 京都에 보고함/『師守記』, 貞治 6년 5월 9일.

1293년(충렬왕 19, 正應 6)

· 4월 22일 鎌倉幕府가 고려의 사신단인 金有成과 郭麟을 본국에 귀환시키려고 하였지만 실행되지 않았고 답서도 보내지 않았음/『師守記』, 貞治 6년 5월 9일.

1366년(공민왕 15, 貞治 5)

· 3월 이래 金龍 일행이 일본의 京都에 들어가 天龍寺에 머물음/『後愚昧記』, 貞治 6년 3월 24일 ; 『愚管記』, 貞治 6년 3월 20일.

· 4월 18일 고려의 사신단이 天龍寺 雲居庵에서 장군 足利義詮을 만남/『師守記』, 貞治 6년 5월 19일.

· 5월 19일 사신단 일행이 奈良의 大佛을 관람하러감/『師守記』, 貞治 6년 5월 19일.

· 5월 23일 일본 조정이 고려의 첩장에 대해 의논하고 답서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함/『愚管記』, 貞治 6년 5월 23일.

· 6월 26일 金龍 일행이 장군 足利義詮으로부터 답서를 받아 귀국함/『後愚昧記』, 貞治 6년 6월 26일 ;『師守記』, 貞治 6년 6월 26일 ;『愚管記』, 應安 1년 윤6월 2일.

1368년(공민왕 17, 應安 1)

· 5월 16일 이 시기 京都에 몽고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는 風聞이 있음/『愚管記』, 應安 1년 5월 16일, 25일 ;『後愚昧記』, 應安 1년 5월 21일.

1376년(우왕 2, 永和 2)

· 5월 3일 坊城俊任이 近衛通嗣에게 왜구 금지를 요청한 고려의 첩장을 전달하자, 近衛通嗣가 이를 國家의 重大事로 다루고자 함/『愚管記』, 永和 2년 5월 3일.

4. 주목되는 기사의 검토

이상과 같이 일본의 고·중세에 나타난 고려 관계 기사 245건을 사건의 전개에 따라 날짜별로 정리하면 83건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 역시 사실의 중복이 많이 있다. 이들 자료 중에서 고려 측의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주목되는 기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939년(태조 22, 天慶 2) 및 940년(태조 23, 天慶 3)의 2년 간에 걸쳐 일본 조정에서 ‘高麗牒’으로 표현된 고려의 외교 문서가 검토되고 있다. 그 중 939년의 ‘高麗牒’은 고려가 937년(태조 20, 承平 7) 일본에 보낸 국서에 이어 두 번째로 보낸 것으로 짐작된다.⁴⁾ 이 때 일본 조정은 答書를 작성하여 大宰府를 통해 이곳에 머물고 있던 고려의 사신에게 주어져 고려의 廣評省에 전달되도록 하였던 것 같다.⁵⁾ 그리고 940년의 경우는 大

4) 이와 관련된 자료로 『日本紀略』, 承平 7년 8월 5일이 있다.

5) 이와 관련된 자료로 『日本紀略』, 天慶 2년 3월 11일이 있다.

宰府를 통해 일본 조정에 전달된 고려의 國書를 검토한 것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었지는 알 수 없다. 이들 자료를 통해 볼 때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곧 일본에 국서를 보내 양국의 외교 관계의 수립을 요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일본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⁶⁾

· 972년(광종 23, 天祿 3) 10월 大宰府가 일본 조정에 고려의 사신단이 2차에 걸쳐 對馬島에 도착하였음을 보고한 것이 발견된다. 이 때 일본에 파견된 고려의 사신단은 南原府使 咸吉兢과⁷⁾ 金海府使 李純達인데, 이들이 지닌 書狀에 기재되어 있는 州名 및 年號가 같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점은 당시 고려가 宋의 연호와 고려의 독자적인 연호를 아울러 사용하고 있었던 결과로 추측되지만, 일주일 사이에 두 사신단이 이어서 도착한 것은 어떠한 연유인지 알 수 없다.⁸⁾

· 974년(광종 25, 天延 2) 高麗貨物使 雅章(혹은 國雅)이 일본의 조정에 돌아왔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다른 기록에 의하면 高麗國交易使藏人所出納 國雅가 교역한 貨物을 가지고 조정에 돌아왔으며, 그 중에는 고려의 말 1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⁹⁾ 이에 나타난 ‘高麗貨物使’, ‘高麗國交易使’는 실제로 고려에 파견된 것이 아니고 大宰府에 파견되어 고려 사신단 또는 商人들에 의해 일본에 도착한 고려의 產物을 구입했던 것으로 추측된다.¹⁰⁾

· 997년(성종 16, 長德 3) 6월에 고려가 大宰府 출신의 日本人을¹¹⁾ 통

6) 羅鐘宇, 「高麗前期의 對外關係史研究」, 『국사관논총』29, 1991.

이병로, 「일본측 사료로 본 10세기의 한일관계」, 『大丘史學』57, 1999.

7) 이와 관련된 기사로 『日本紀略』, 天祿 3년 9월 23일이 있다.

8) 이에 대응하여 일본 조정에서 公卿들의 會議가 개최되었던 것을 기록한 자료로 『百練抄』4, 天祿 3년 10월 20일이 있다.

9) 『日本紀略』, 天延 2년 윤10월 30일.

10) 森克己, 『續日宋貿易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p.419.

11) 이들 日本人은 어떠한 존재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이 시기에 한반도에 건너와 무역에 종사하고 있던 일본 상인으로 추측된다. 또 이보다 2년 후인 999년(목종 2, 長保 1)에 日本人 道要彌刀를 위시한 20戶가 고려에 投化하여 利川郡에

해서 일본에 3통의 國書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중 1통은 일본 정부에 나머지 2통은 대마도에 보낸 것이라고 한다. 이 국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단지 국서의 문장 중에 ‘有使辱日本國之句 所非無怖畏者’, ‘有令耻日本國之文’으로 표현된 일본을 모욕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¹²⁾ 이에 대해 大幸大貳 藤原有國이 管内의 군사를 징집하여 要害地를 지키게 하였다고 하며, 이를 논의한 右大臣 藤原顯光을 위시한 9명의 公卿들은 國書의 내용이 무례하다고 하면서 答書[返牒]를 보내지 않고 요해지를 지키며 祈禱를 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 고려의 국서가 宋의 謀略에 의한 것, 고려가 禮儀를 저버린 것이라고 使者에게 전할 것, 大幸府 출신의 使者를 다시 고려에 건너지 못하도록 처벌할 것 등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 1019년(현종 10, 寬仁 3) 3월이래 여진족[刀伊]에 의한 일본의 對馬·壹岐·筑前(福岡縣 博多 지역)·肥前(佐賀縣 지역) 등 지역의 침입에 대한 기록이 찾아지고 있다.¹³⁾ 곧 여진족은 3월 28일 선박 50여 척으로 對馬島와 壹岐島를 침입한 이래 筑前國·肥前國으로 나아가 博多灣의 那珂郡 能古島에 도착하여 방어시설[警固所]을 공격했을 때의 상황을 여러모로 기술한 것이다. 이에서 한반도 관계의 기사로서 주목되는 것은 893년(진성여왕 7, 寬平 5) 및 894년(진성여왕 8, 寬平 6)의 新羅人의 침입에 대처했던 일본의 대응책이 찾아졌으며, 여진족의 포로 중에 고려인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 중 고려인 포로에 대한 大幸府의 보고에는¹⁴⁾ 4월 13일 여진족을 격퇴하던 일본군이 高麗人 3명을

정착한 일도 있다(『고려사』세가3, 목종 2년 10월).

- 12) 이에 대해 南基鶴은 “이 때의 고려 침장은 의문에 싸여 있지만, 그 속에는 고려가 중국과 동일한 大國의 입장을 가지면서 일본을 蕃國으로 간주한 내용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고려와 일본의 상호인식』, 『일본역사연구』11, 2000, p.71).
- 13) 이들의 침입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일본 朝廷은 초기에는 國際情勢에 대해 어두워서 고려인에 의한 침입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 14) 이 때 大幸府에서 일본 조정에 올린 牒狀도 찾아지고 있다(『朝野群載』20, 太宰府

포로로 잡았는데, 이들은 刀伊의 방어를 위해 변방에 파견되었으나 오히려 이들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에의 침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 조정에서는 고려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고 하여 다시 심문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또 여진족에게 피로되었던 對馬判官代 長岑諸近이 탈출한 후 고려에 건너가 母·妻子를 구출하려다가 女子 10인과 함께 귀국했던 것, 귀국한 일본 여인의 보고에 고려의 兵船이 여진족을 격파했던 사실 및 고려 병선의 규모·전투 장비에 대한 서술, 고려측의 피로인에 대한 구휼 등이 주목되고 있다. 또, 이 때 長岑諸近이 귀국하여 對馬府官에 보고했던 내용을 太政官에 전한 大宰府의 解文 중에 보이는 府官의 말이 주목된다. 곧 新羅는 원래부터 敵國이고 비록 國號를 바꾸었다고 하여도 일본을 공격하려는 야심은 바꾸지 않았으니, 피로민의 송환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戰勝을 틈타 通好를 위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여 불신감·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¹⁵⁾

또 같은 해 9월 피로된 일본인들을 송환시킨 고려의 사신단인 供驛署 丞 鄭子良이¹⁶⁾ 國書를 가지고 일본의 대마도에 도착했던 일에 대해, 일본 조정에서는 고려가 피로인을 송환시킨 것을 謀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였고, 고려의 사신이 大宰府에 이르러 일본의 약함을 살필 것을 우려한 나머지 答書[返牒]와 답례품을 주어 조속히 돌려보낼 것을 의논하기도 하였다.¹⁷⁾ 이는 당시 일본 지배층들이 지닌 국제인식의 결여를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이다.¹⁸⁾

· 1080년(문종 34, 承曆 4) 고려의 禮賓省이 商人 王則貞을¹⁹⁾ 통해 大

異國, 「擊攻刀伊國賊徒狀」.

15) 石井正敏, 「日本・高麗關係に關する一考察」, 『737史における法と國家』, 中央大學, 2000, pp.171-173.

16) 『고려사』세가4, 현종 10년 4월 병진.

17) 南基鶴, 「고려와 일본의 상호인식」, 『일본역사연구』11, 2000, p.77.

18) 川添昭二, 『中世九州の政治と文化』, 文獻出版, 1981, pp.52-53.

19) 王則貞은 大宰府의 商人으로 문종 27년 7월 松永年 등 42인과 함께 고려에 도착하여 각종 공물을 바친 적이 있다(『고려사』세가9, 문종 27년 7월 병오). 그는 博多

幸府에 醫員을 요청했던 첩장에 대한 일본 조정의 대응을 기록한 것인데, 이의 대체적인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같은 해 2월 5일 다자이 후가 이 시기 이전에 이미 받았던 고려 禮賓省의 牒狀과²⁰⁾ 이와 관련된 解狀을²¹⁾ 太宰府에게 바치자, 일본 조정에서 公卿들의 評議가 행해져 이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처음에는 의사를 파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丹波忠康 및 惟宗俊通이 거명되기도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의사를 파견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고, 이후 答書의 작성에서 예빈성의 牒이 과거의 儀禮와 차이가 나고 蕃禮에 어긋난다는 점이 제시되어 답서를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고 한다.

· 1160년(의종 14, 永曆 1) 12월 17일 일본 조정에서 고려가 일본의 상인을 체포하여 구류시킨 것[擄留]을 의논하고, 각 분야의 專門家[諸道, 諸道博士]로 하여금 典故를 조사하여 의견서[勸文]를 제출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이 극히 간단하여 어떠한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²²⁾

· 1185년(명종 15, 元曆 2) 3월 鎌倉幕府의 初代 將軍인 源賴朝의 外戚인 對馬守 藤原親光이 平氏政權의 공격을 피해 가족과 부하들을 이끌고 고려에 건너갔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²³⁾ 고려 측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倭人이 그들의 정치적 변란을 피해 고려에 건너왔던 한 예로서 주목된다.

· 1226년(고종 13, 嘉祿 2) 이후 왜구가 고려에 침입했던 것을 傳聞으로 들은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곧 肥後國(熊本縣 지역) 및 壱岐島 지역의 왜인들이 作黨하여 고려에 들어가 노략질을 일삼았던 것에 대한 傳聞

에 거주하다가 일본에 歸化한 宋商人으로 추측되기도 한다(森克己, 『續日宋貿易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p.263).

20) 『朝野群載』20, 異國, 高麗國禮賓省牒.

21) 『朝野群載』20, 異國, 太宰府解; 『本朝續文粹』11, 牒. 이 太宰府解에는 發給日이 3월 5일로 되어 있지만, 2월 5일일 가능성이 있다.

22) 이와 같은 내용이 『百練抄』, 永曆 1년 12월 17일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는 대마도의 상인으로 되어 있다.

23) 이와 관련된 자료로 『吾妻鏡』, 文治 1년 5월 23일, 6월 14일이 있다.

을 기록한 것인데, 이는 松浦 지역의 왜인들 곧 松浦黨이라고²⁴⁾ 불렀던 해적집단들이 병선 10여 척을 만들어 고려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자행하였던 것을 기록한 것이다.

· 1227년(고종 14, 嘉祿 3) 5월이래 全羅州道按察使의 牒狀이 일본에 도착하였던 것에 대한 견문을 기록한 자료로서, 이에 의하면 이 시기 이전에 고려의 첩장은 2통이 일본에 보내졌고, 이중 正本 1통은 武家에, 寫本 1통은 公家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또 大宰府의 府官²⁵⁾ 左右를 물리치고 혼자서 牒狀을 開封하고 答書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 1240년(고종 27, 延應 2) 4월 이 시기 이전에 고려가 일본에 보낸 牒狀에 기록되어 있는 ‘進奉船’이라는 말을 둘러싸고 일본 朝廷 내에서 일어난 논의를 기록한 것이다.²⁶⁾ 이 때 1206년(희종 2, 金 泰和 6, 元久 3) 고려의 金州防禦使가 일본의 對馬島에 보낸 牒狀이 발견되어 참고 자료로 제출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 조정이 미처 認知하고 있지 못했던 사실 곧 對馬島가 ‘進奉船’의 이름으로 고려와 朝貢體制를 체결하여 무역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 조정에서는 泰和가 어느 나라의 年號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국제 정세에 어두웠기에 대마도가 고려에 進奉船을 每年 1차례 2隻의 선박을 보내어 무역을 행하였다는 것²⁷⁾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1206년 金州防禦使가 일본의 對馬島에 보낸 첩문에 의하면 대마도의 使臣인 明賴 등 40인이 3척의 배를 타고 金州 南浦에 도착하였는데,

24) 松浦黨은 備前國(長崎縣·佐賀縣 지역) 松浦郡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활거하던 弱小武士團에 대한 총칭으로, 이들은 선박을 이용하여 바다를 건너 한반도·중국과 무역에 종사하는 자가 많았다. 또 이들은 중앙의 귀족으로부터 海賊集團으로 취급되기도 하였고, 고려 말기에 한반도에 침입해온 왜구들의 중요한 구성 분자의 하나였다.

25) 이 때의 府官은 1226년(고종 13, 嘉祿 2) 大宰少貳로 되었던 카마쿠라바쿠후(鎌倉幕府)의 御家人(고케닌) 출신의 少貳 資賴(쇼오니 스키요리)로 추측된다.

26) 이에 대한 公卿들의 논의는 같은 해 4월 3일에 攝政 近衛兼經의 宿直處(直處)에서 이루어졌다. 『百練抄』, 仁治 1년 4월 3일 ; 『帝王編年記』, 仁治 1년 4월 3일.

27) 『고려사』세가²⁵, 원종 4년 4월 갑인.

進奉을 칭하고 文牒을 바쳤으나, 그 문장이 심히 擾雜하고 言語도 공손하지 못하여 進奉의 禮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에 廉察使가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자 조정도 일본인과의 접촉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형편을 金州防禦使가 대마도에 통보하기 위해 牒狀을 보낸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13세기를 전후하여 일본인들이 進奉船의 이름으로 고려와 일정하게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고려는 進奉規程을 정하여 일정 기간내의 渡航回數와 船數를 제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 1268년(원종 9, 文永 5) 윤1월 이후 ‘異國襲來’·‘異賊襲來’·‘蒙古襲來’ 등으로 불린 여원연합군의 일본 원정에 대한 풍문이 나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일본 조정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다. 곧 같은 해에 고려의 사신인 潘阜가 원 世祖 및 元宗의 국서를 가지고 大宰府에 도착하여 일본 막부에 전달한 이후, 이의 내용을 막부로부터 전달받은 公家(朝廷)의 형편을 기록한 것이다. 이 때 일본 조정에서는 몽고 및 고려의 國書를 읽고서 이것이 일본의 臣屬을 요구한 것이기에 ‘此事國家珍事大事也 萬人驚歎之外無他’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 1275년(충렬왕 즉위년, 建治 1) 4월 여원연합군의 제1차원정이 실패로 끝난 다음해에 室津에 도착한 몽고의 사신단인 杜世忠·撒都魯丁 등이 關東으로 옮겨져 9월에 처형된 것을 기록한 것이다.

· 1367년(공민왕 16, 貞治 6) 2월이래 고려가 왜구를 무력으로 소탕하는 동시에 회유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金龍·金逸 등의 사신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왜구 금지를 요청했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²⁹⁾

28) 『고려사』세가25, 원종 4년 4월 갑인에 의하면 일본으로부터의 進奉은 정해진 約條에 의해 매년 1회로서 선박은 2척으로 정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青山公亮 『日麗交渉史の研究』, 明治大學, 1955, pp.22-24 ; 森克己, 『續』日宋貿易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p.39, pp.75-67.)

29) 이와 관련된 자료로 『太平記』39, 高麗人來朝事; 『醍醐寺文書: 高麗國牒狀』; 『智覺普明國師語錄』6, 「送高麗使萬戶金龍歸」, 「送同使檢校中郎將歸」, 「送從書記歸高麗 高麗生緣」, 「送使禪人送高麗人」 등이 있다.

5. 맺음 말

이상에서 한반도에서 고려왕조가 존속했던 시기에 해당하는 9세기 후반부터 14세기까지 곧 일본의 고대 및 중세 사회에서 만들어진 각종 日記에 수록되어 있는 고려 관계의 기사를 정리하여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고려와 일본의 정부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국 간에는 경제적·문화적·인적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래서 각종 일본측의 자료에서는 고려 및 고려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정들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극히 단편적인 고려 관계 기사만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양국 간의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다가 전근대 일본의 각종 자료에서 사실에 대한 要目만을 기록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만 소략한 우리측의 자료를 조금이나마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최근 수년간에 걸쳐 현존하는 일본의 각종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高麗王朝 關係 記事를 정리해 본 결과 대략 450여건의 자료가 찾아지고 있다. 이들 중 日記類는 23종류의 日記에 245건의 자료가 있다. 이들은 내용 자체가 극히 간단하여 이를 통해 고려와 일본의 외교 관계의 추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국측의 연대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韓·日 兩國 사이에 이루어졌던 접촉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 고·중세에 쓰여진 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고려 관계 기사는 몇 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단편적인 내용들이다. 그 중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인 13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日記에는 한국측의 연대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韓·日 두 나라 사이의 접촉 및 표류민의 송환에 대한 사실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이들을 통해 고려와 일본의 외교 관계의 추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어 주목된다. 또 고려후기에 해당하는 13세기 이후의 일기

에는 倭寇들의 한반도 침입 및 이에 대응한 고려 측의 사신 파견, 元 나라의 일본 초유를 위한 사신 파견 및 여원연합군의 일본 정벌에 대한 기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에 관한 기사는 고려측의 자료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상황만이 반영되어 있을 뿐인 데 비해, 각종 일기를 통해 일본에서의 형편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 당시의 역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參考文獻

『高麗史』, 『高麗史節要』, 『貞信公記抄』, 『親信卿唱記』, 『權記』, 『小右記』, 『左經記』, 『水左記』, 『帥記』, 『中右記』, 『山槐記』, 『吉記』, 『玉葉』, 『民經記』, 『明月記』, 『平戶記』, 『深心院關白記』, 『吉續記』, 『勘仲記』, 『弘安四年日記抄』, 『師守記』, 『後愚昧記』, 『愚管記』, 『參天台五臺山記』, 『渡宋記』, 『日本紀略』, 『百練抄』, 『朝野群載』, 『本朝續文粹』, 『吾妻鏡』, 『帝王編年記』, 『太平記』, 『智覺普明國師語錄』.

투고일 2003. 6.20 심사시작일 2003. 7.7 심사완료일 2003. 7.22

Abstract


Descriptions of the Koryo Dynasty in the Japanese Diaries

Chang, Dong-ik

There was no active economic, cultural and human exchange between Koryo and Japan, as they had no official foreign relationship each other. For this reason, we hardly find any detailed description on the Koryo dynasty and people of Koryo in Japanese literary sources except extremely fragmental descriptions. This is due to lack of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the countries and to a tendency that only brief facts were written in many materials. Therefore, even these fragmental descriptions will supplements for the deficiency of our materials.

There seems to be about 450 mentions of Koryo dynasty in Japanese literary materials. 245 mentions of these from 23 diary materials. Although it is not possible to find out the changes of foreign relationship between Koryo and Japan from these diary materials, we can confirm the existence of contacts between two countries, which did not appear in the Korean chronology.

Although there were various contents in the descriptions of Koryo dynasty in Japanese materials of ancient and medieval period, most of them were about commissioners and official letter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oreign relationship, mutual visits, return of drifting persons, and trade of Korean literature and goods.

 Koryo, Japan, official foreign relationship, Japanese literary sources, diary materials

국문초록

日本の 日記資料에 수록된 高麗王朝 關係 記事의 研究

장 동 익

고려와 일본의 정부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국 간에는 경제적·문화적·인적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래서 각종 일본측의 자료에서는 고려 및 고려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정들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극히 단편적인 고려 관계 기사가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양국 간의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다가 전근대 일본의 각종 자료에서 사실에 대한 要目만을 기록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소략한 우리측의 자료를 조금이나마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최근 수년간에 걸쳐 현존하는 일본의 각종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高麗王朝 關係 記事를 정리해 본 결과 대략 450여건의 자료가 찾아지고 있다. 이들 중 日記類는 23종류의 日記에 245건의 자료가 있다. 이들은 내용 자체가 극히 간단하여 이를 통해 고려와 일본의 외교 관계의 추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국 측의 연대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韓·日 兩國 사이에 이루어졌던 접촉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 고·중세에 쓰여진 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고려 관계 기사는 몇 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단편적인 내용들로서 여러 부문에 걸쳐 다양하지만, 고려왕조 측의 외교 수립을 위한 사신 및 國書의 파견, 양국인의 왕래, 漂流民의 송환, 한반도 문물의 일본 전래 등에 관한 자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제어

高麗, 日本, 公式의 外交關係, 日本資料, 日記資料